

[제8차 미래한국리포트]

2010 대한민국

‘소통’

Building Consensus in Korea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Turn Off your
Cell Phones.



통역안내
Interpretation

Channel 1: 한국어
Channel 2: English



안녕하십니까?

제 8차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 사회를 맡은 SBS 8뉴스 앵커 김소원입니다

미래한국리포트 연혁

- 1차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 2004. 9
- 2차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2005. 1
- 3차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 2005. 9
- 4차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2006. 2
- 5차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2007. 11
- 6차 기후의 역습 2008. 11
- 7차 위기를 넘어서 2009. 11

SBS는 지난 2004년부터 7차례의 미래한국리포트를 통해 한국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에 대해 한발 앞서 고민하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먼저 미래한국리포트의 그 동안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영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급속한 고령화, 경제 규모가 증가해도 오히려 줄어드는 일자리. 2004년 출범한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한국사회가 딛고 넘어가야 할 시대의 화두를 제시해왔습니다.

[2004.9] 디아나 패럴/맥킨지&컴퍼니 글로벌 연구소 소장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

2005.1] 제레미 리프킨/‘노동의 종말’ 저자 -“실업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래한국리포트는 백년대계 교육에 이어 개인의 행복과 가정 문제로 까지 사회적 관심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2005.9]배리 맥고/OECD 교육국장 -“평생 교육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2006.2]앨런 칼슨 /세계가족회의 의장 -“모든 국가의 미래는 가족을 통해 생겨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리더십,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미래비전도 제시해 국민과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8.11]박재완/청와대 국정기획 수석비서관 -“소리 없이 다가오는 기후변화가 훨씬 심각한 문제”

[2009.11]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사회적 신뢰가 확립되지 않으면 선진국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규모위주의 양적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에 맞는 사회적 신뢰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0년 8차 미래한국리포트는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신뢰와 ‘소통’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보신 대로 올해 미래한국 리포트의 주제는 소통입니다.
먼저 우원길 SBS 대표이사 사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 회 사

우원길

SBS 대표이사 사장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우원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황식 국무총리님, 강평을 맡아주신 이재오 특임장관님,
그리고 바쁜 국회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주신 많은 의원님들,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기업인 여러분들,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먼 스웨덴에서 오신 부 로스타인 예테보리 대학 교수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님,
캐서린 한 한국비폭력대화센터 대표님, 롤랜드 빌링어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님등
미래한국리포트에 연사로 나서주신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SBS는 지난 2004년부터 일곱 차례 미래한국 리포트를 통해
일자리와 교육, 행복, 리더십, 기후변화 같은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8번째 미래한국리포트의 주제로 '소통'을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내고,
이제는 G20 정상회의를 주재할 만큼 세계의 중심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동체 건설이 필요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SBS는 공동체 건설, 그 중심은 소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대한민국 사회가 왜 소통을 외치는 지, 지금 진정 필요한 소통은 무엇이고,
그 소통은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
서로 다른 가치를 인정하는 다양성 존중의 문화, 그리고 이해다툼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갈등조정 시스템들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SBS 미래한국리포트에 많은 지혜를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8차 미래한국리포트 '소통'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라)

축사



김 황 식
국무총리

다음은 미래한국리포트 발표에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여덟 번째 맞이하는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윤세영 회장님을 비롯한
SBS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특별연설을 해주실 분들과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SBS는 그동안 '미래한국리포트'를 통해 경제위기와 고령화, 교육, 기후변화 등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번 발표회의 주제인 '소통'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당당한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전기(轉機)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지수'가 OECD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GDP의 27%나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해야 공감할 수 있고, 공감해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저는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일할 때,
'판사가 말하고 싶은 법과 시민사회'라는 신문칼럼을 통해
법원과 시민의 거리를 좁히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살려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언론은 가장 소중한 소통의 통로라고 믿습니다.
SBS를 비롯한 많은 언론이 소통의 더 큰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회가 소통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는 매우 유익한 시간
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고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2010 대한민국 '왜 소통인가'라는 주제로
 한국 소통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 시점에서 왜 '소통'이 중요한지,
 그리고 보다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 어떤 소통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국전쟁 1950-1953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81* /*1987년 6월 민주항쟁*

분단과 전쟁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경제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 성장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제규모 세계15위,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는 등
 민주적 선거제도와 국민 참여시스템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민주적인 제도 도입,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소통 수단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사회 계층과 세대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세계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틀은 부족합니다.

마이클 샌델/하버드 대학교 교수

"다른 의견을 존중해주고 다른 의견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갈등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소통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너와 내가 상존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함께 더불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왜 소통인가

Building Consensus in Korea

1) 민주주의 제도 - 기술적 기반 완비



안녕하십니까? SBS미래부 김용철 기잡니다.
보신대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민주화 달성



지난 87년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됐고,
지방자치제도 정착돼 이제 시 군 구 의원까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합니다

민주화 달성



정당 22개



언론사 275개



시민사회단체 약 23,000개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소통을 해야 하는
정당은 22개 언론사는 275개 시민사회단체는 2만3천개에 달합니다.

뉴미디어 확산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에 이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도 급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기반은 갖춰진 것입니다

왜 소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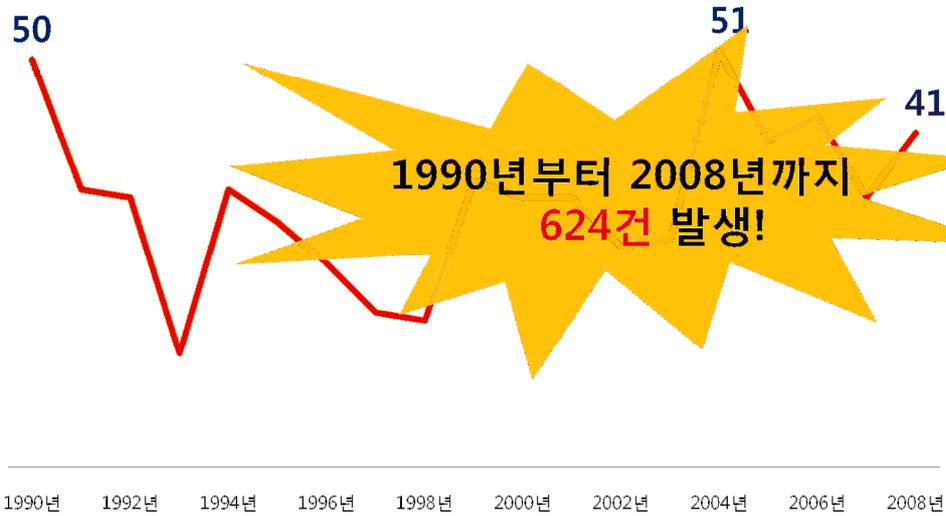
Building Consensus in Korea

2) 사회적 갈등 심각, 소통갈증 심화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사회적 갈등은 확산되고,
국민들의 소통에 대한 갈증은 커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공공갈등



자료 :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지난 90년 이후 19년 동안 대규모 공공갈등은 624 건 이 발생했습니다.
연 평균 37건이 발생해, 한 건당 평균 497일 동안 지속됐고,
평균 참여자는 2만 명이나 됐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공공갈등



자료 :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연 평균 37건이 발생해, 한 건당 평균 497일 동안 지속됐고, 평균 참여자는 2만 명이나 됐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빛은 사회적 낭비

천성산터널갈등

4년 7개월 간
2001. 11~2006. 6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국가적 손실
1조 9228억 (추정치)



사패산터널갈등

2년 1개월 간
2001. 11~2003.12



도롱뇽 소송으로 유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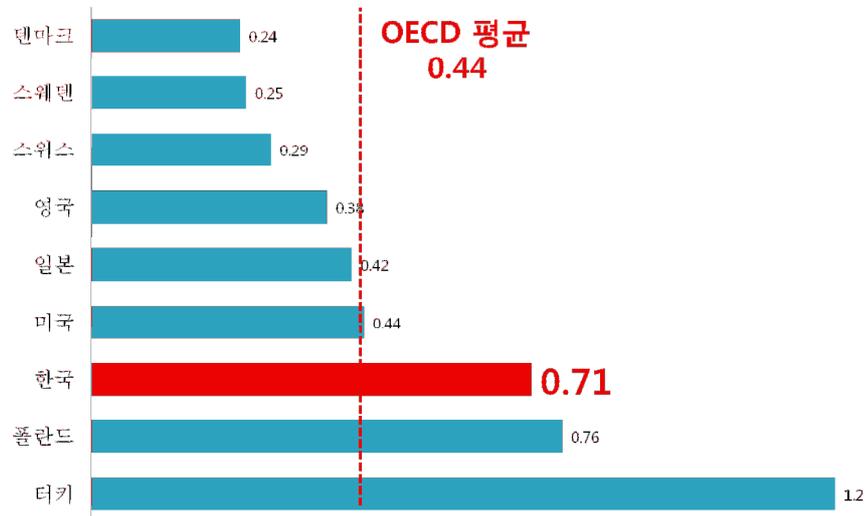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갈등은 4년7개월,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갈등은 25개월이 지속됐습니다.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2조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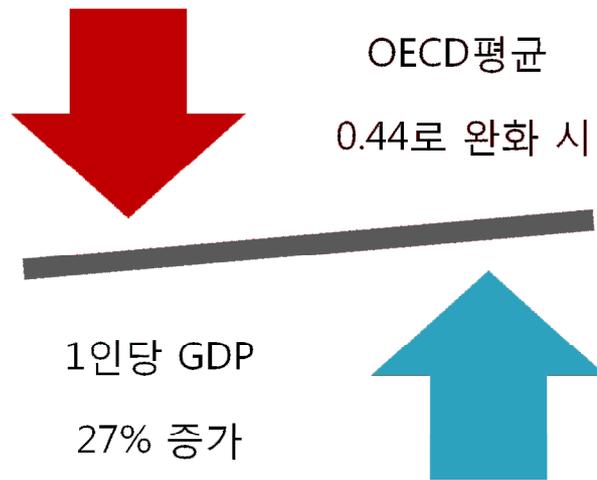
사회갈등지수, 세계 4위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10호 (2009)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사회 갈등지수는 0.71로 OECD 평균 0.44보다 배 가까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갈등지수, 세계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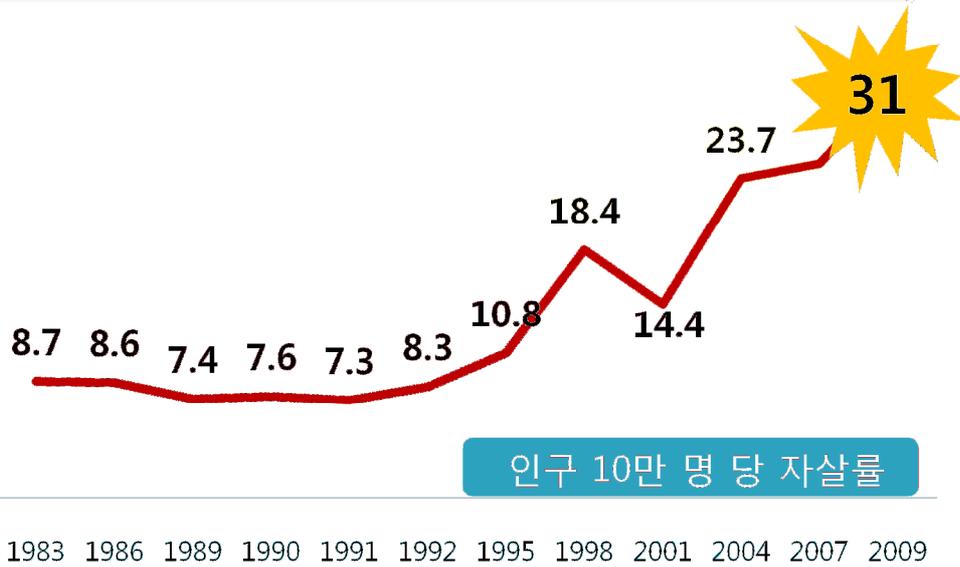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10호 (2009)

이 사회적 갈등지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1인당 GDP는 27% 증가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연간 270조원이상을 사회갈등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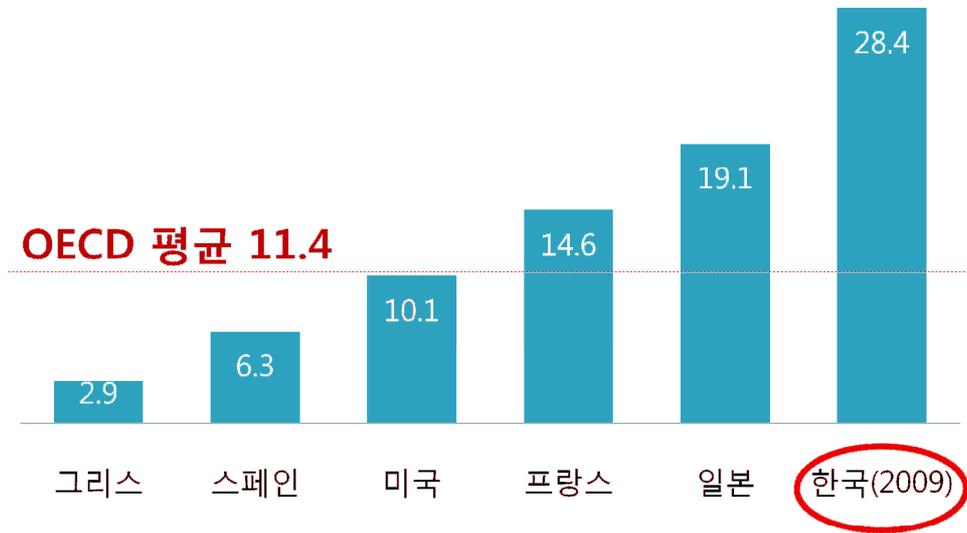
자살률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사망원인통계 (2009)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자살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단연 세계 1위입니다.
10만명 당 31명에 달합니다

한국 자살률,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

한국의 자살률은 OECD국가 평균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보다 50%나 많고,
그리스보다는 10배나 많습니다.

SBS - 갤럽 여론조사

[제8차미래한국리포트]



Building Consensus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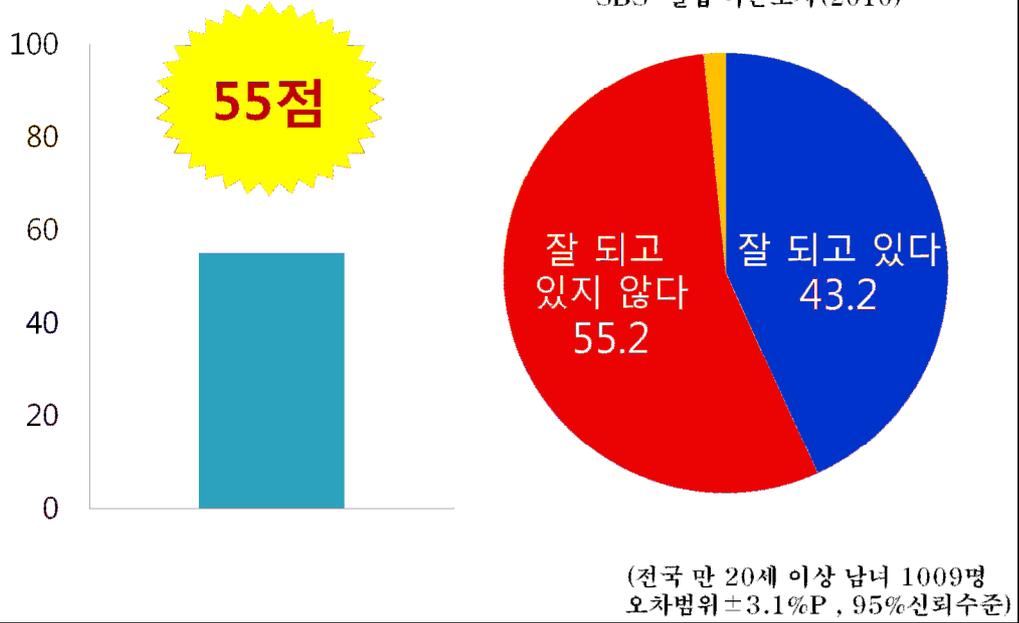
3) 소통, 잘 되고 있습니까?



SBS는 이처럼 우리사회의 질이 낮은 원인을 소통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갤럽과 함께 국민들에게 소통이 잘 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소통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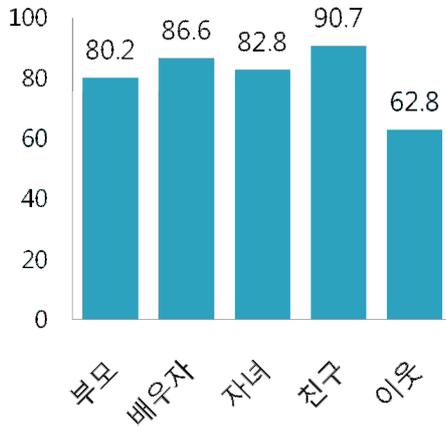
SBS-갤럽 여론조사(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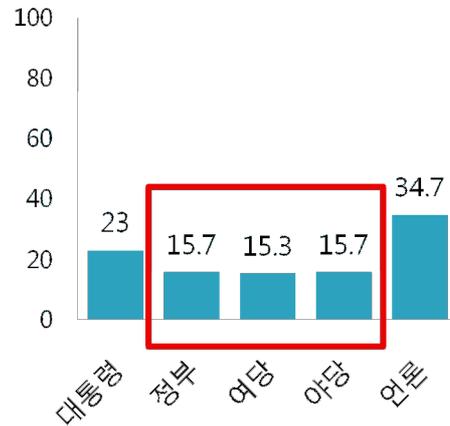
그 결과 국민들은 55%가 소통이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평균 소통 점수는 백 점 만점에 5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낙제점입니다.

대상 별 소통의 원활동도

주위사람



사회주체



SBS-갤럽 여론조사(2010)

소통 대상별로는 가족이나 친구 등과는 8-90%가 소통이 잘 된다고 응답한 반면 사회주체와 소통이 잘된다는 응답은 적었습니다.

대통령과 소통이 된다는 응답은 23%,

정부나 여당, 야당과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5%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공동체 대한민국의 소통 문제는 주변사람들과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나 정치권 등 우리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들과의 문제로 분석됩니다.

특별연설



국민의 눈높이로 본
대한민국의 미래:

제2근대화와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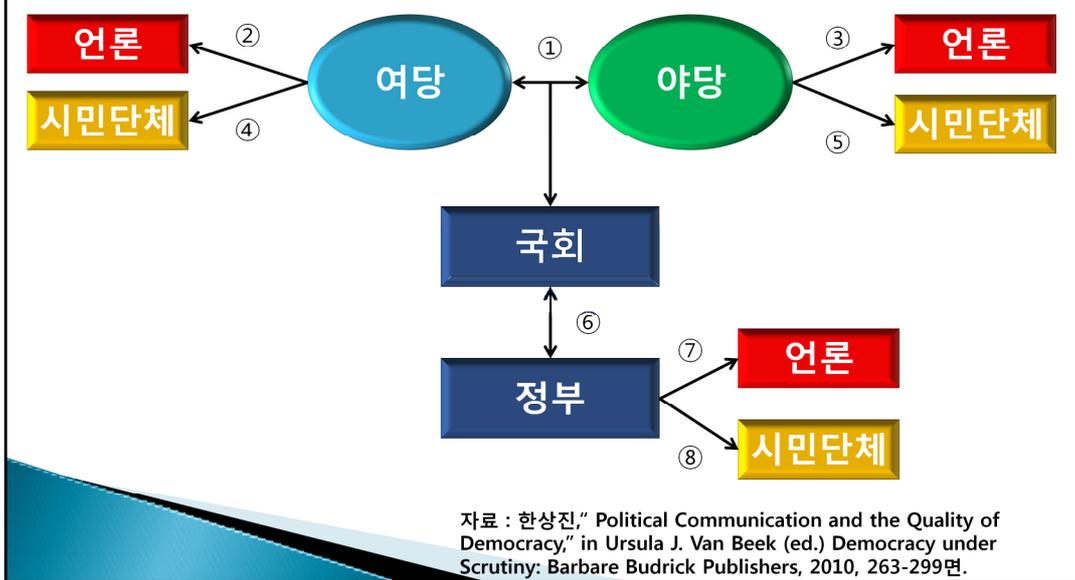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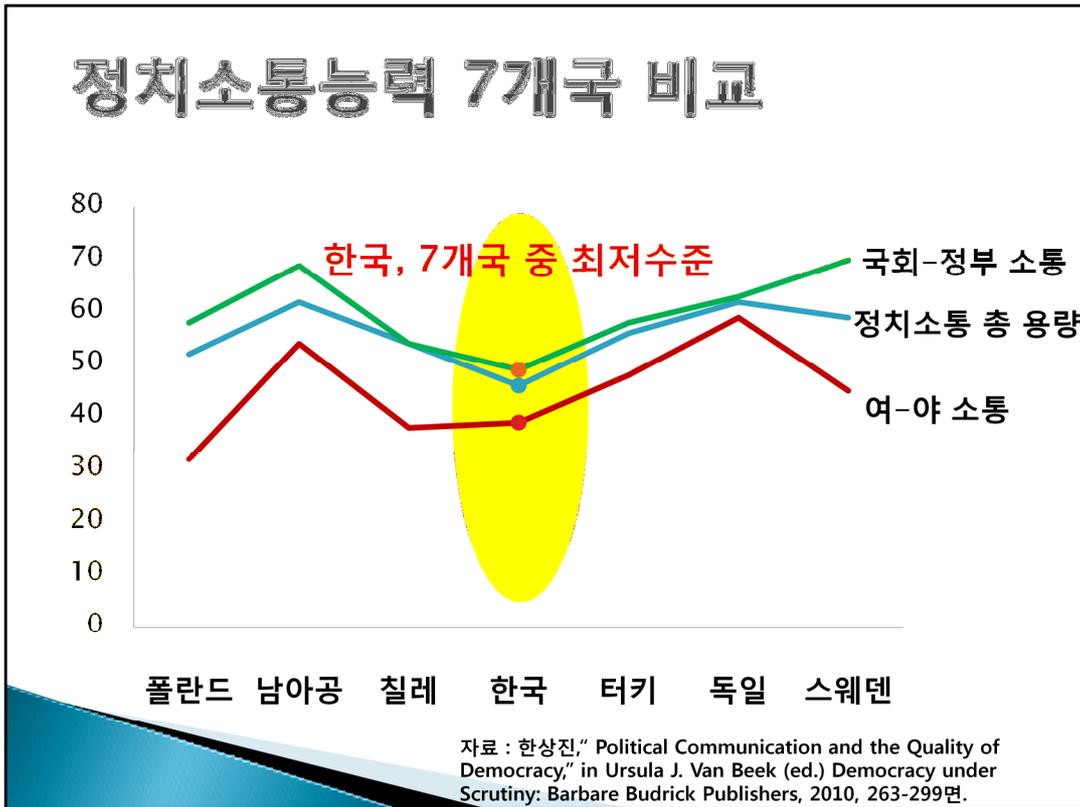
그러면 여기서 왜 소통이 필요한지,
소통의 사회학을 주창하고 계시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특별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날 소통부진을 질타하는 국민의 소리가 높고 뜨겁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사회학을 공부해온 학자로서 바로 여기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의 타는 목마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반 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서구를 따라 잡는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돌진적 근대화에 따른 후유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요. 공적 제도들에 대한 신뢰가 놀랄 만큼 저조합니다. 빈부격차를 포함하여 시민들의 삶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위험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다시 외치기 시작한 것이 다름 아닌 '소통'이었던 것입니다. 빈곤탈출, 독재청산에 뒤이어 오늘날 분출되고 있는 국민의 소통갈증을 우리는 잘 읽어야 합니다. 저는 그 안에 <제2차 근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녹아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소통을 열어야 그 기초 위에서 공정사회의 합의를 만들 수 있고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협력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저의 연구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정치소통 분석모델



저는 정치 소통의 주요 행위자를 여당, 야당, 국회, 정부로 잡고 이들 사이의 소통과 함께 이들이 각각 매스 미디어, 시민집단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평가의 주체는 국회의원과 국민입니다. 즉 정치의 중심에 있는 100명의 국회의원과 이를 보는 1천명의 국민이 그림에 나와 있는 1번부터 8번까지의 소통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측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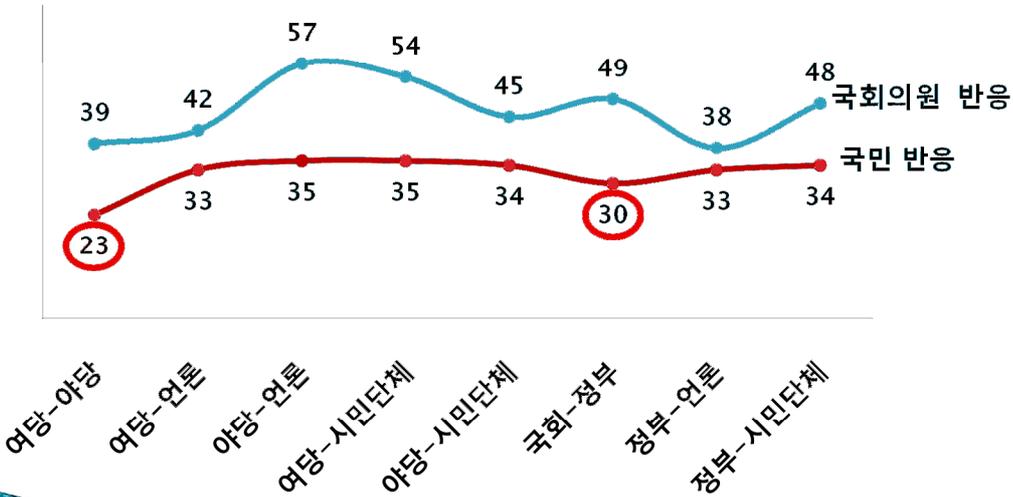
국제비교를 위해 7개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민주화의 역사적 대변화를 겪은 나라들입니다.
국제조사는 2007년 초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정치소통에서 가장 최하위에 속합니다. 8개 차원의 소통능력을 종합한 <정치소통 총 용량>이 최하위입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의 소통도 최하위입니다. 하나의 그림에 모든 자료를 포함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 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소통지수는 8개 차원의 대부분에서 최하위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한국의 정치소통 현실

각 주체간 소통에 대한 반응



자료 : 한상진, "Political Communication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in Ursula J. Van Beek (ed.) Democracy under Scrutiny: Barbare Budrick Publishers, 2010, 263-299면.

여러분이 보듯이, 국회의원의 평가와 국민의 평가는 매우 다릅니다. 국민이 보는 여야소통은 가히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100점 만점에 23점에 불과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소통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평균지수는 49점이지만, 국민은 30점이어서 매우 차갑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평가는 모두 50점을 크게 밑도는 아주 낮은 점수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50점을 겨우 상회하는 것이 두어 개 있는 형편 없는 자화상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서구 뒤를 따라 잡는 근대화에서 성공을 거둔 대한민국의 다음 과제는 시민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품격을 높이는 제2차 근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역사적 도전을 뜻합니다. 서구로부터 배울 것을 배워야 하지만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비전, 꿈을 요구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 첫 단추이자 핵심은 바로 소통에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문명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서양과는 달리 동양의 소통철학은 매우 겸손하고 포용적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결코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펴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의 3대 원칙은 첫째,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는 것, 둘째, 상대의 말을 나에게 편리한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대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서로의 차이에 압도 당하지 않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 실천하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통은 분열의 장이 아니라 차이와 더불어 공존하는 장입니다. 和而不同, 易地思之, 忠恕의 윤리는 모두 동양의 정체성이 녹아 있는 소통방식을 뜻합니다. 특히 지도자는 소통의 모범이 될 것을 요구 받습니다. 한문 聖人の 聖자는 귀와 입 그리고 임금 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큰 귀로 모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포용적인 대화로 중심을 잘 잡아 정책을 집행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각고의 노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 땅에 일구어냈듯이, 이제는 소통사회 건설로 제2차 근대화의 길을 여는데 앞장 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동양문화의 소통규범을 진정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밖에도 소중한 발전의 잠재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소통의 달인이 되고 정치인,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이면서 소통사회를 향한 국가적 발전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적극 호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 십 년간 서구의 뒤를 쫓아가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세계를 이끄는 제2차 근대화의 선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식정보강국이 되어 그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동양의 소통규범을 잘 접목시킨다면, 정치발전과 함께 가정, 친구, 이웃, 학교, 직장을 소통공동체로 만드는 의미심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 과업에 적극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불통인가

Building Consensus in Korea

1) 국민 가치관 변화 - 소통주체는 권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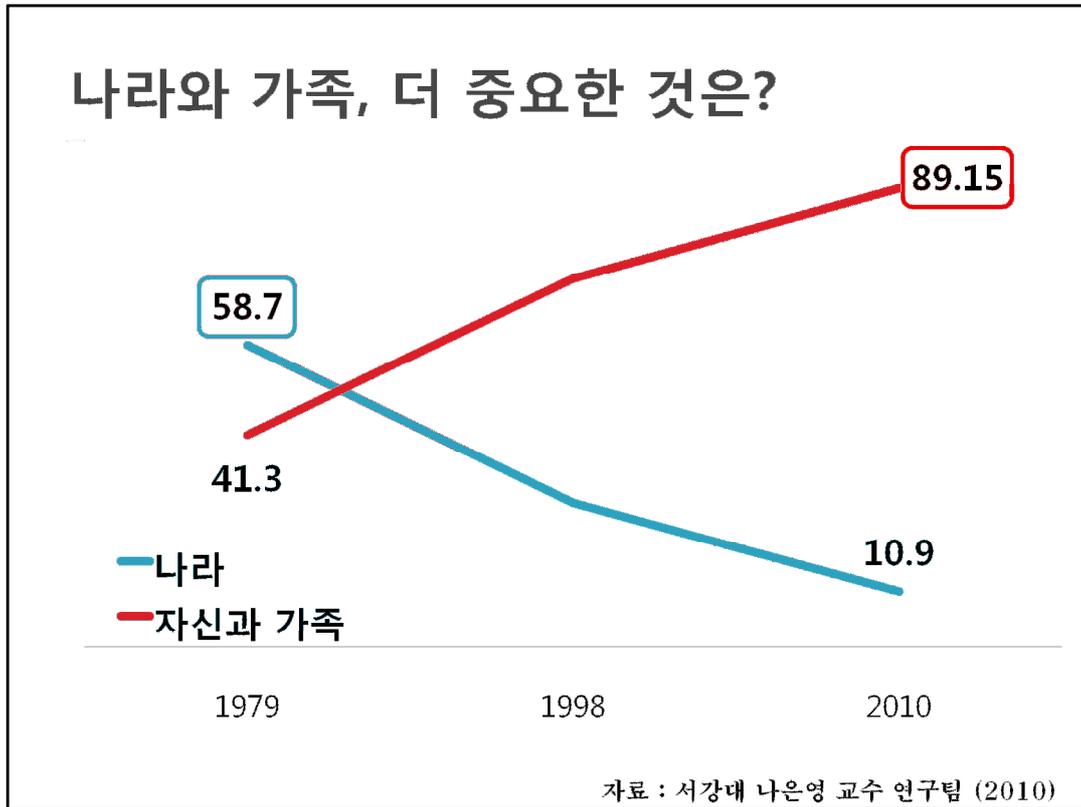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사회는 왜 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됐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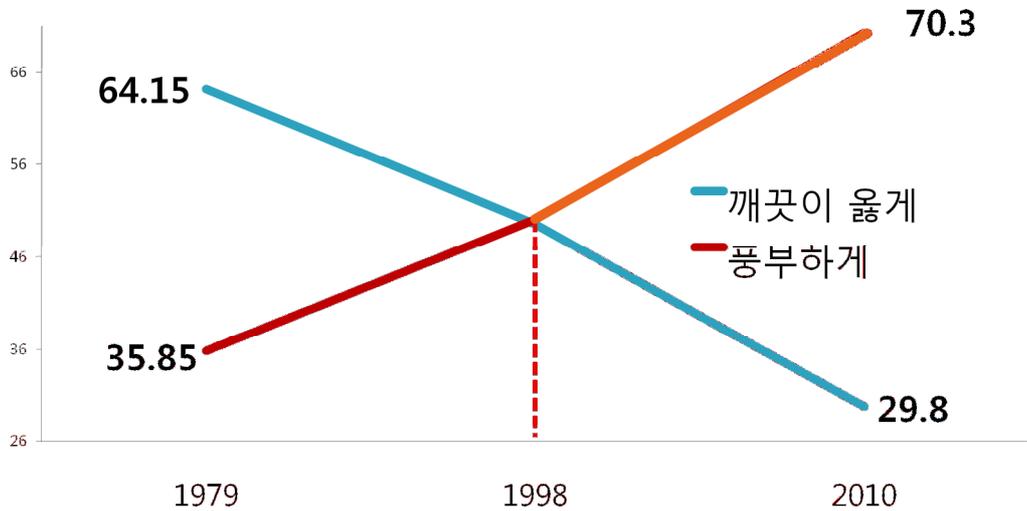
무엇보다 우리국민들의 가치관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소통의 주체들은 권위적인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 나은영 교수팀이 지난 30년 동안의 가치관 변화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나라와 가족 중에 더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나라라는 응답은 30년 전 58%에서 지금은 10%대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나와 가족이라는 응답은 30년 전 41%에서 이제 89%로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명 가운데 아홉이 국가보다는 나와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생활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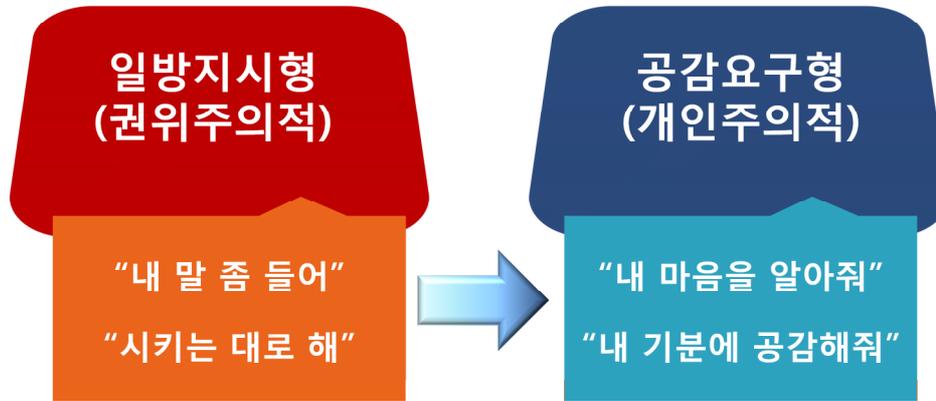
자료 : 서강대 나은영 교수 연구팀 (2010)

이번에는
깨끗이 옳게 사는 게 중요한가 풍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물었습니다.

깨끗이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응답은 64%에서 29%로 줄었습니다.
반면 풍요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응답은 35%에서 70%로 높아졌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좀 실수가 있더라도
풍요하게 살아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소통에 대한 요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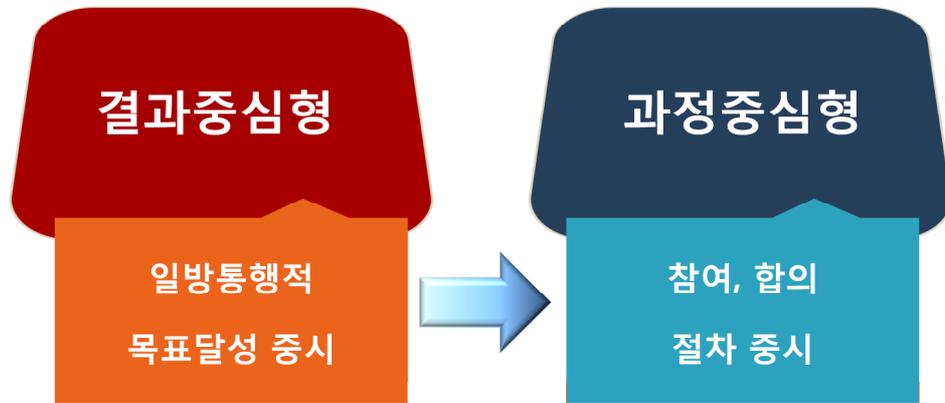
자료 : 위즈덤센터(2010)

소통에 대한 요구도 바뀌고 있습니다.

연세대 황상민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방 지시형의 권위주의적인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낮아지고,
공감을 원하는 개인주의적 소통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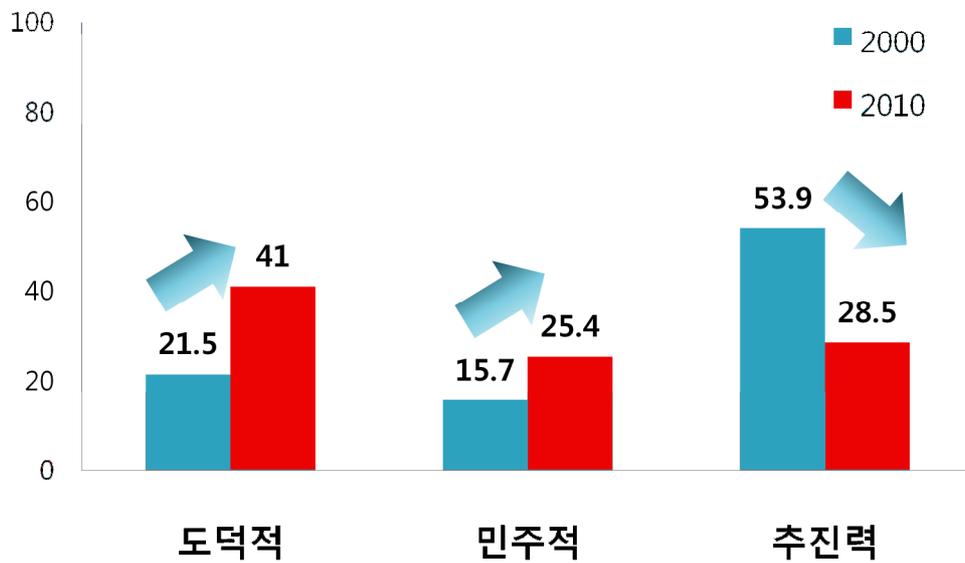
소통에 대한 인식 변화



자료 : 위즈덤센터(2010)

무엇을 소통으로 볼 것인가 하는
소통에 대한 인식도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는 결과 중심 형 소통에서
참여와 합의, 절차를 중시하는 과정 중심 형 소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지도자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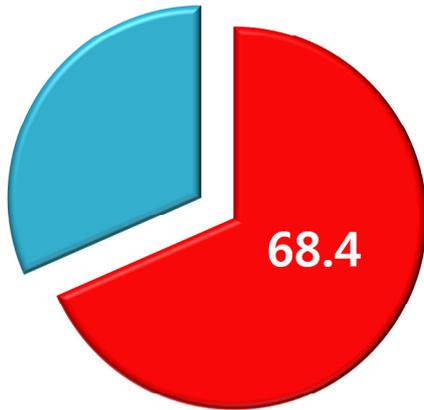


SBS-갤럽 여론조사(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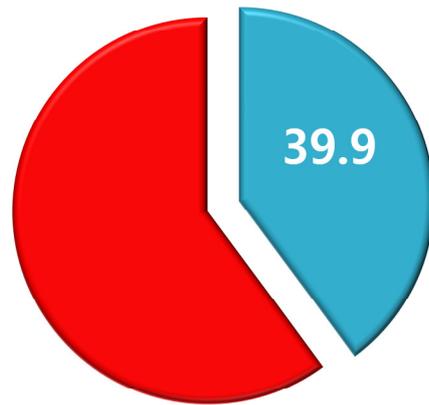
국민들이 보는 바람직한 지도자상도 바뀌었습니다.
 도덕적 민주적인 지도자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10년 전 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추진력이 강한 지도자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절 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은 이처럼 개인적, 민주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 운영인가?

우리나라,
소수 거대집단 위해 운영된다



정부,
여론 정책 잘 반영하고 있다



SBS-갤럽 여론조사(2010)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운영은 권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 68%가 우리나라가 소수 거대 집단을 위해 운영된다고 응답했고,
정부가 여론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4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 불통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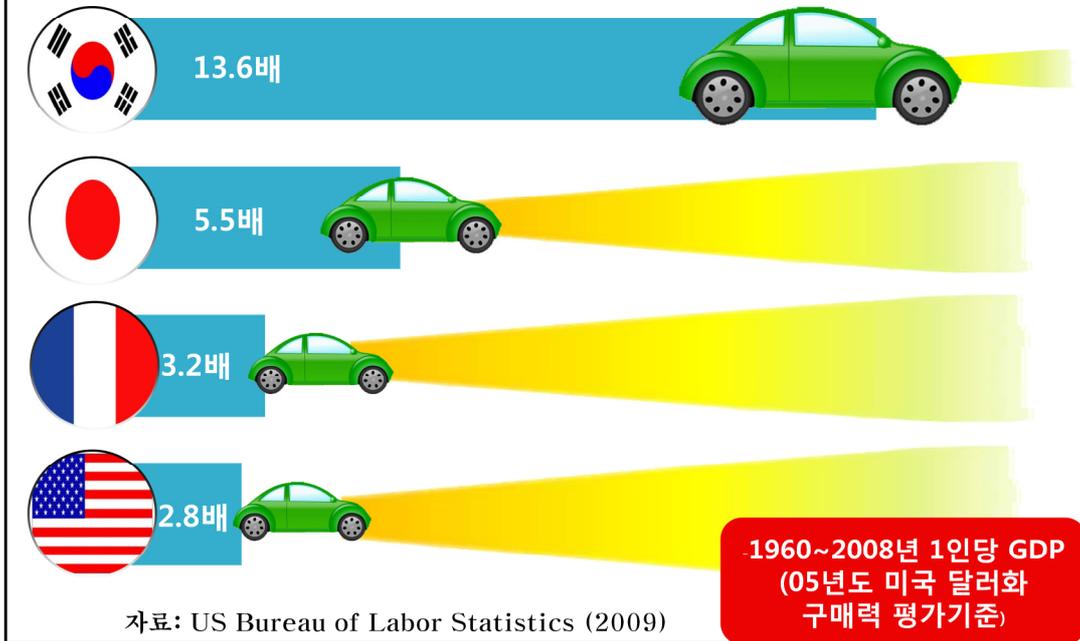
Building Consensus in Korea

2) 초고속 성장의 그늘, 절차나 과정 무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초고속 성장의 그늘입니다.
성장신화 속에 과정과 절차는 무시돼 온 것입니다.

초고속 성장, 결과 지상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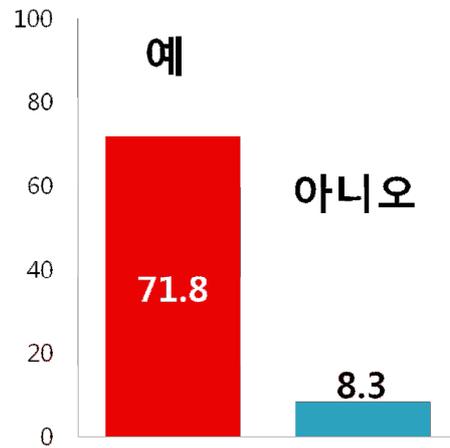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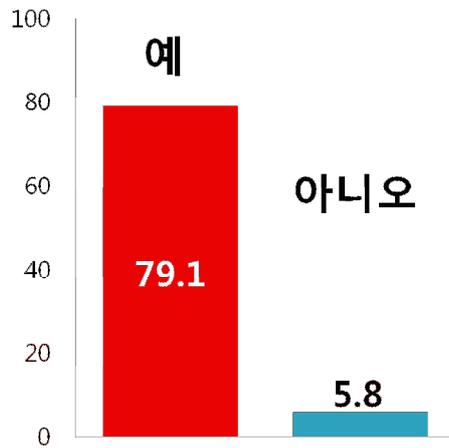
한국의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은 지난 49년 동안 13배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 등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변을 돌아 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면 수단이나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우리말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 따로, 현실 따로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은
연줄과 인맥을 통해서다.

원칙대로 살면 손해다.



SBS-갤럽 여론조사(2010)

결국 성공을 해도

국민들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와 갤럽의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79%가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은
연줄과 인맥을 통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원칙대로 살면 손해라는 응답도 71%를 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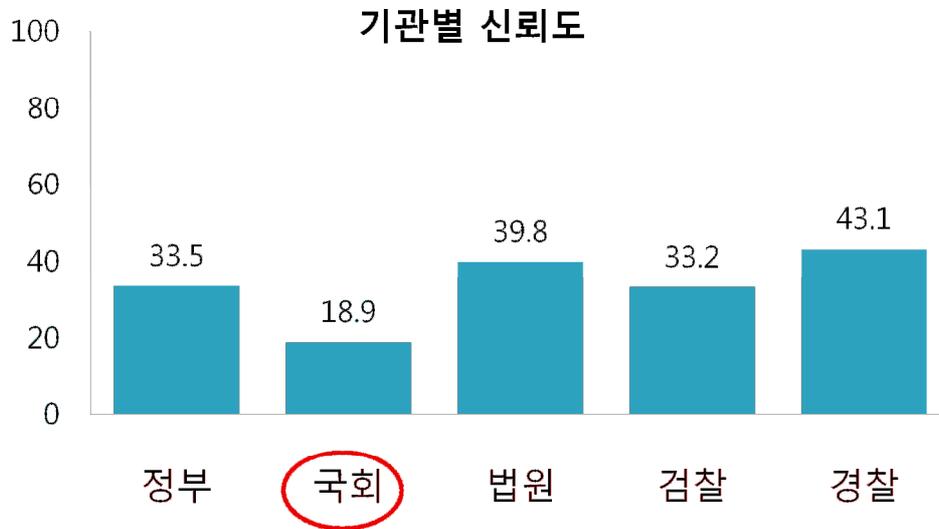
아는 사람 있어 부탁하면 유리한 결과



SBS-갤럽 여론조사(2010)

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 부탁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63%,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 77%에 달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있지만 현실은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신뢰 저조



SBS-갤럽 여론조사(2010)

이렇다 보니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부나 법원 검찰을 신뢰한다는 국민들은 30%대,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믿는 사람은 다섯 명 가운데 한 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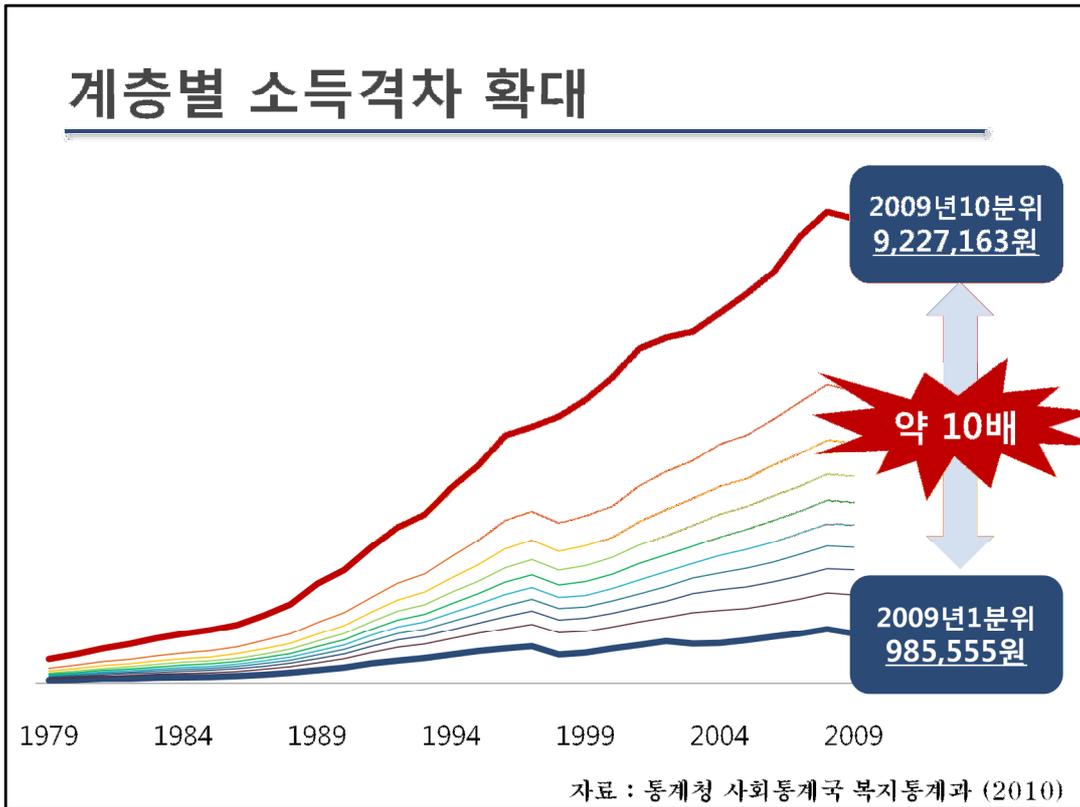
왜 불통인가

Building Consensus in Korea

3) 사회적 격차 확대, 낮은 사회적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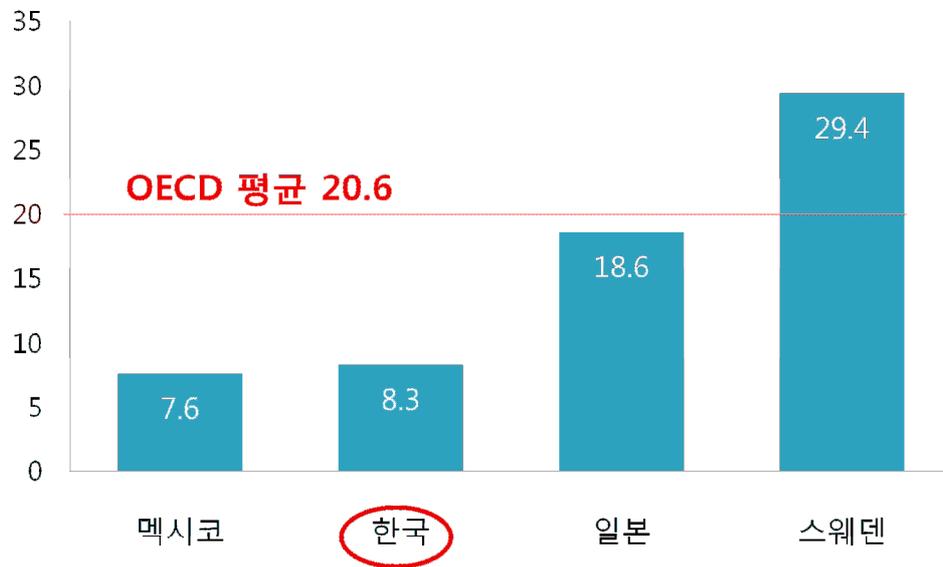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소통을 막는 것은
갈수록 벌어지는 사회적 격차와 이에 따른 사회적 신뢰 부족입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10%의 한달 평균 소득은 98만원으로
 최저생계비 114만원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반면 상위 10%의 월평균 소득은 922만원으로
 1분위 소득의 10배나 됐습니다

사회복지지출 GDP 10% 밑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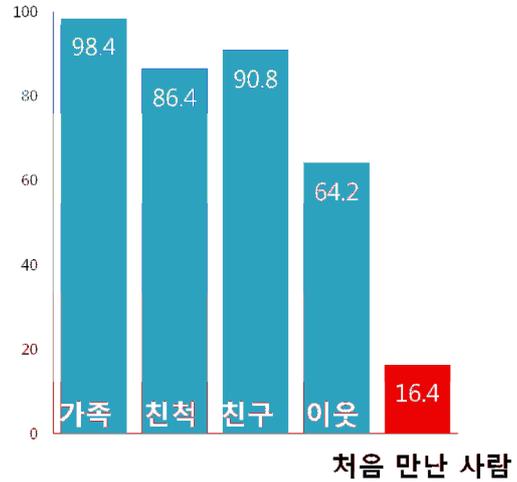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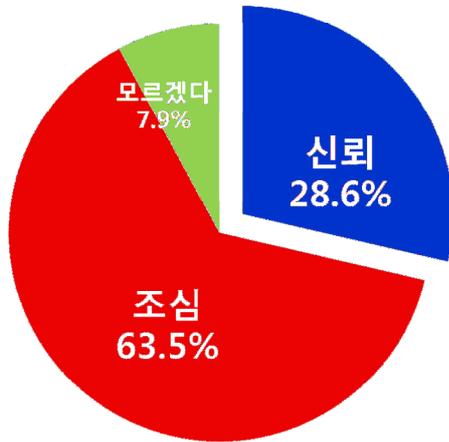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2010)

이렇게 사회적 격차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민소득대비 8.3%에 불과합니다.
OECD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신뢰 낮고 가족 중심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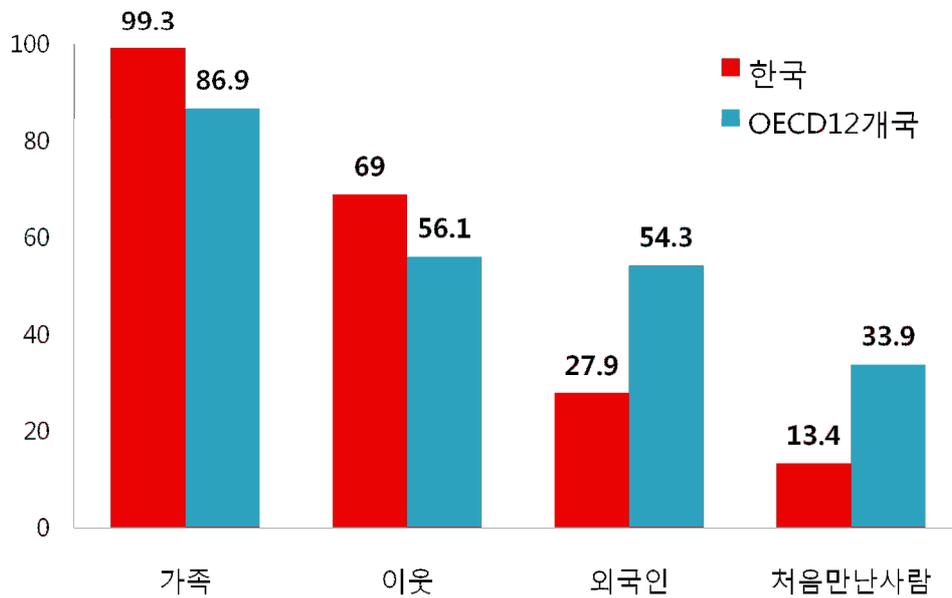
대부분 사람 신뢰할 수 있나



SBS-갤럽 여론조사(2010)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다 보니
 사회적 불안은 커지고 사회적 신뢰는 낮습니다.
 대부분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8%에 그쳤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구는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은 반면
 처음 만난 사람은 16%만이 믿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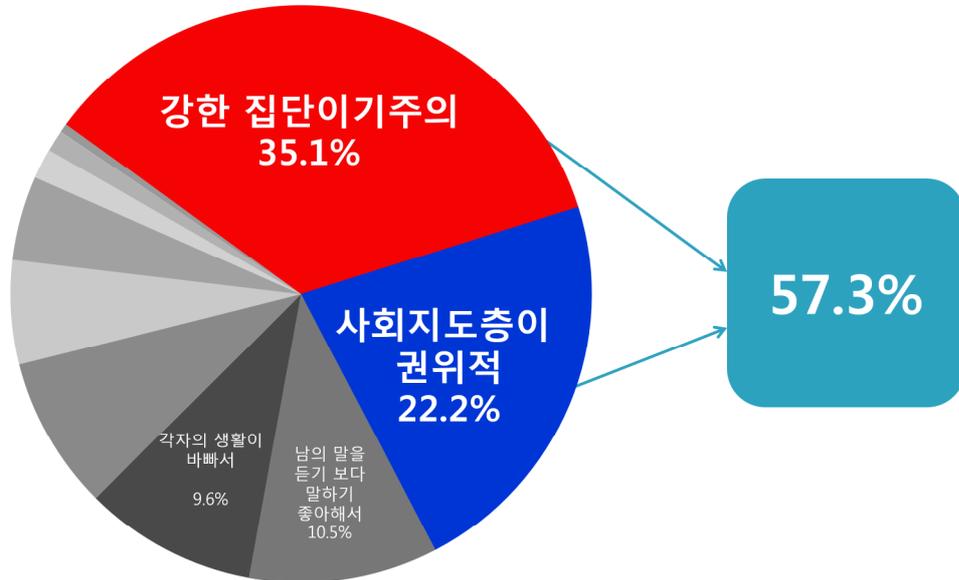
이웃에 대한 신뢰 낮고 가족 중심 신뢰



자료 : World Values Survey 2005

다른 OECD 국가보다 가족이나 이웃을 믿을 수 있다는 사람은 더 많지만,
 처음 만난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OECD국가 12개국 평균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는 믿고 터놓고 지내지만
 낯 선 사람은 믿지 못하는 이중적 소통행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



SBS-갤럽 여론조사(2010)

우리국민들은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로 절반 이상이 강한 집단 이기주의와 권위적인 사회지도층을 꼽았습니다. 사회적 신뢰 구축을 통해 강한 집단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사회지도층이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한다면 우리사회의 소통상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소통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영상보시겠습니다.

<영상>

복소리를 듣고 노래의 제목을 맞추는 게임.
누구나 잘 아는 노래들인 만큼 복을 치는 사람은 상대방이 제목을 쉽게 알아챌 거라 생각하지만,
답을 맞추는 사람은 그저 어리둥절합니다.

"아 좀 느껴봐 좀" / "아 나 못하겠어, 정말로"/"강조했는데. 그걸 몰라 왜" / "그걸 어떻게 알아! 수많은 노래 중에.."

복을 치는 사람의 생각과 달리 복소리를 듣는 상대방은 정작 노래의 제목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거리에서 '이 남성이 데이트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되게 들킵해 보이고, 어..잘 챙겨줄 것 같아요"/"좀 무서워서 피하게 될 것 같아요"

다양한 평가처럼 데이트 신청 수락여부에 대한 대답도 엇갈렸습니다.

"

“호감형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몇% 사람들 정도가 데이트 신청에 응할것 같아요?
다른 여성분들?)” “한 60% 하하하”

“별로” (다른 여성분들은 어떻게 말할까?) “대부분 거절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한 80%”

한가지 일관된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cg2)이 남성이 마음에 든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른 여성의 56.4%가
데이트에 응할거라 예측했습니다.

반면 이 남성이 싫다는 사람은 39.2%의 여성들만이 데이트에 응할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자신과 생각이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신의 판단에 그대로 작용한 것입니다.

SYNC :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자기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다, 자기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할 것
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점을 보
여주는 실험입니다”

소통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남들도 자신과 같으리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 할 때
소통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뉴미디어에서의 소통

Building Consensus in Korea

새로운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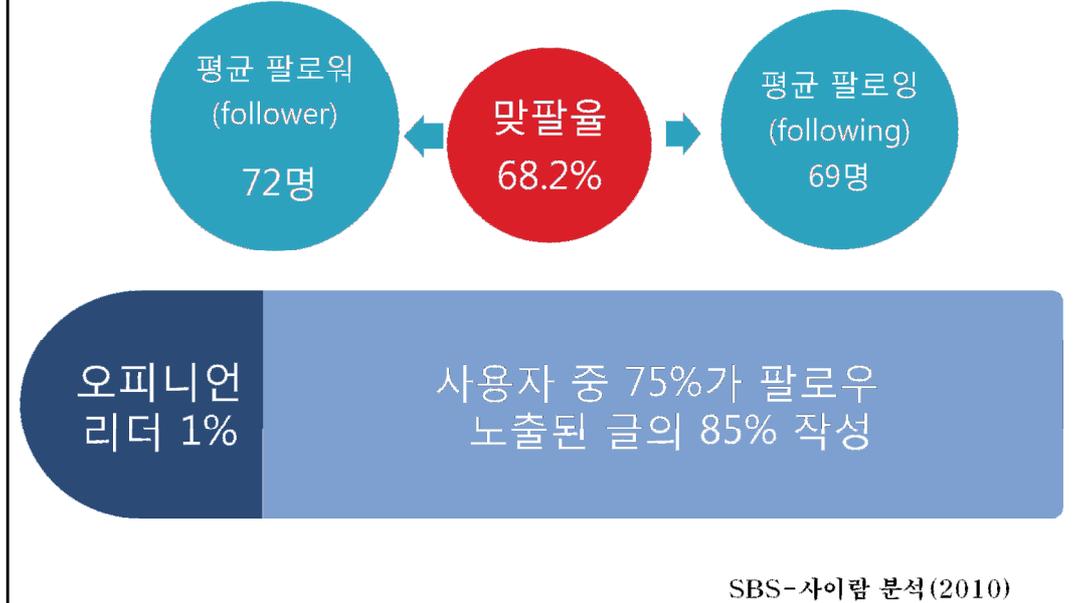


이번에는 뉴미디어와 소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인터넷 매체는 정보 전달 속도는 빠르지만
여론의 양극화를 유발해 소통을 방해한다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확산되는 소셜 미디어는 어떨까요?

SBS는 네트워크 분석업체 사이람과 함께
트위터에서의 소통행태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달 동안에 트위터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사이람 동영상1>
두달 동안 내국인 가입자 111만명 사이에 이뤄진
트윗 메시지 7천7백만건을 전수 조사했는데요.
트위터의 메시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인 트위터 소통구조



분석 결과 평균 팔로워 수는 72명입니다.
 또 평균 69명을 팔로우 하고 있으며 서로 팔로우하는 맞팔율은 68.2%입니다.
 오피니언리더 1%를 전체 가입자의 75%가 팔로잉하고
 트위터 사용자들이 보는 글의 85%는 상위 1%가 쓴 글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여론 주도층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이람 동영상2>

오피니언 리더들이 글을 쓰면 그 글을 팔로워들이 리트윗을 통해 전파하는데
 전체 리트윗의 절반이 8분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3.8단계만 거치면 모든 트위터 가입자를 만날 수 있는 역동적인 정보 전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팔로워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써서 다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보내는 쌍방향소통구조입니다.

<사이람 동영상3>

이번에는 정치인들의 트위터 소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절반이
 트위터에 가입해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백성운, 정병국, 원희룡 의원을 중심으로 트위터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진애, 천정배, 이계안 전 의원을 중심으로
 트위터내 소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로 같은 당 의원들끼리의 트위터 소통이 먼저
 이뤄지고 이들 활동이 왕성한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다른 당 의원들과도
 소통합니다.

<사이람 동영상 4>

이번에는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이 트위터 상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시겠습니
 다. 먼저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비판세력이 트윗을 날립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기타 세력이 트윗에 가담했는데요.
 학력위조가 아니라는 타블로 옹호세력들이 생겨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치열한
 소통을 벌인 뒤 타블로의 학력위조 의혹은 결국 근거가 없다는 옹호 쪽으로 세력이 기울
 ь니다.

한국인 트위터 소통구조

SBS-사이람



[사이람 동영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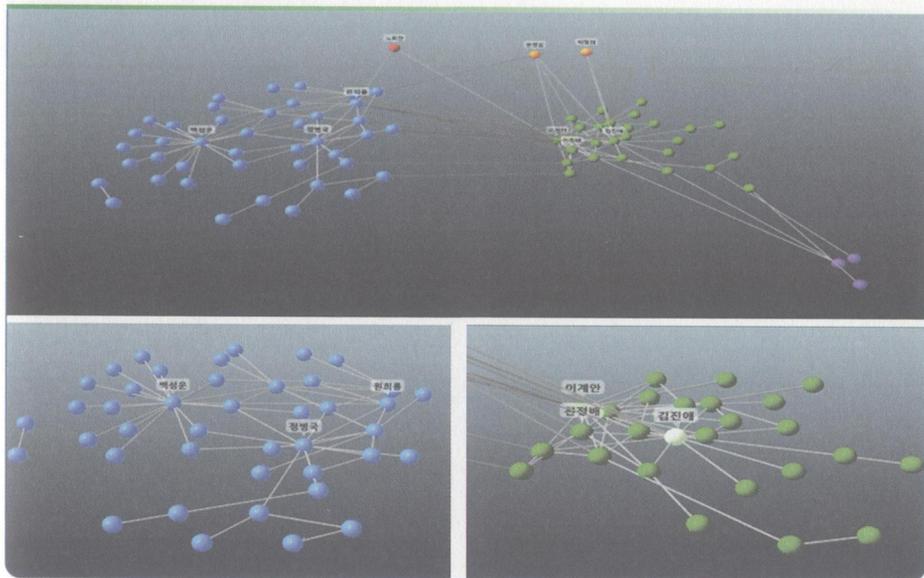
오피니언 리더들이 글을 쓰면 그 글을 팔로워들이 리트윗을 통해 전파하는데 전체 리트윗의 절반이 8분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3.8단계만 거치면 모든 트위터 가입자를 만날 수 있는 역동적인 정보 전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팔로워들은 단순히 메시지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글을 써서 다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보내는 쌍방향 소통구조입니다.

정치인 트위터 내 소통

SBS-사이람



[사이람 동영상3]

이번에는 정치인들의 트위터 소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절반이 트위터에 가입해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백성운, 정병국, 원희룡 의원을 중심으로
트위터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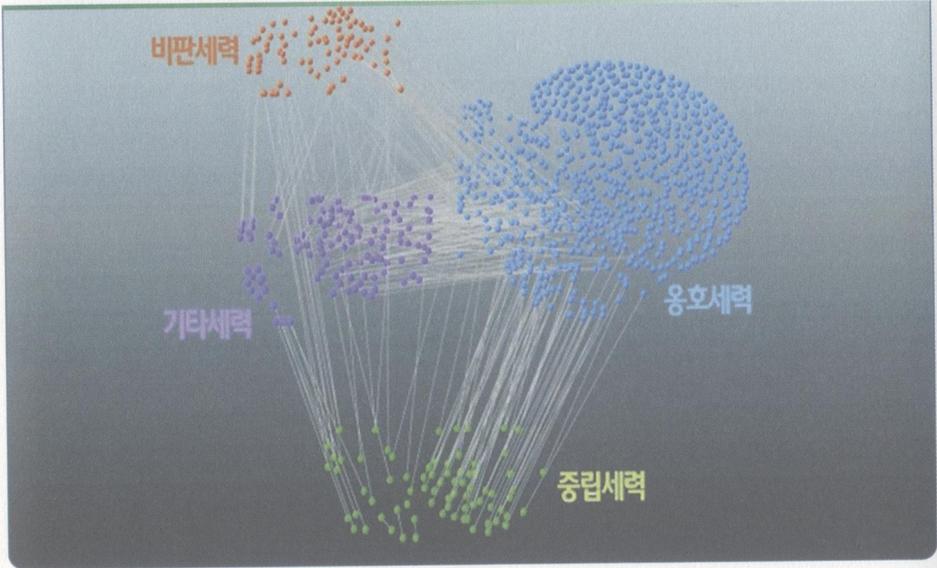
민주당은 김진애, 천정배, 이계안 전 의원을 중심으로
트위터 내 소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로 같은 당 의원들끼리의 트위터 소통이 먼저 이뤄지고

이들 활동이 왕성한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다른 당 의원들과도 소통합니다.

타블로 학력 위조 논란

SBS-사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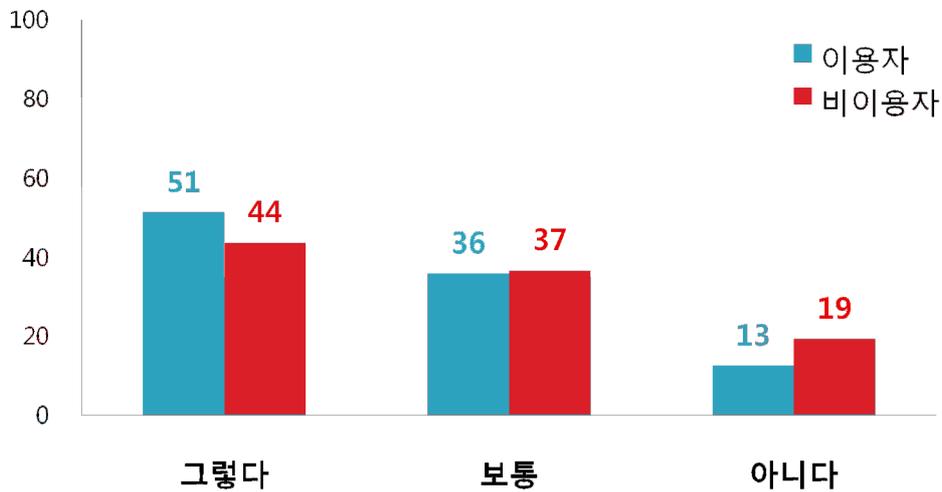


| 사이람 동영상 4 |

이번에는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논란이
 트위터 상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비판 세력이 트윗을 날립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기타 세력이 트윗에 가담했는데요.
 학력 위조가 아니라는 타블로 옹호 세력들이 생겨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치열한 소통을 벌인 뒤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은 결국 근거가 없다는 옹호 쪽으로 세력이 기울입니다.

한국인 트위터 소통구조

“나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글도 찾아 읽는다”
(단위 : %)



SBS-닐슨 공동조사(2010)

트위터 안에서도 끼리끼리 소통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짐으로써
여론 정화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와 닐슨의 조사결과에서도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글을 찾아 읽는다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여론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기존 인터넷 매체와 달리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뉴 미디어 전문가들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영상>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또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같은 뉴미디어는 대표되지 않은 사람들 혹은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동의하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안이라 할까 혹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즈 스톤 / 트위터 공동창업자

“초창기부터 트위터에서는 “진실할수록 당신에게 더욱 이익이다”는 생각이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열리고 정직한 자세를 보여주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고
그만큼 사용자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연설

“기업도 소통이다”

롤랜드 빌링어
맥킨지&컴퍼니 서울대표



그럼 이번에는 기업에서의 소통은 어떤지
맥킨지& 컴퍼니 서울사무소 롤랜드 빌링어 대표로부터
특별연설을 듣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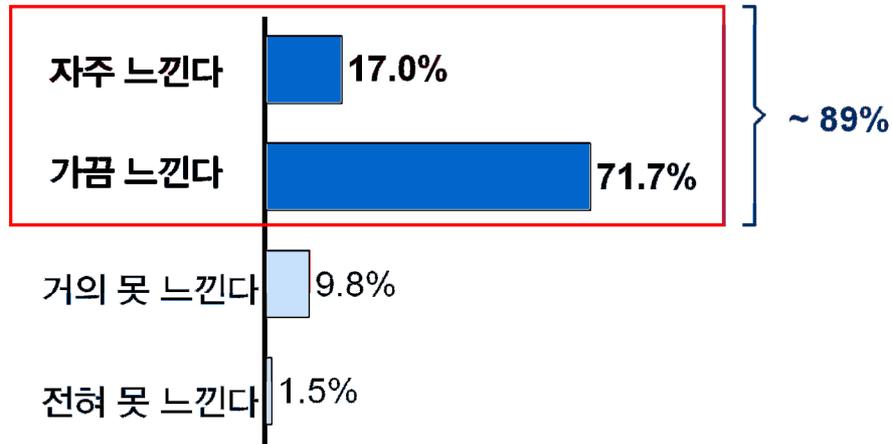
Dr. 빌링어?

Thank you.

Today, So-tong is on everyone's mind for the obvious reason that, depending on how well it's done, our society as a whole will move forward – or not. With that in mind, SBS has asked McKinsey to take a closer look at how So-tong takes place within companies in Korea, and there is plenty of reason why we need to look at this particular segment.

SERI CEO 설문조사 결과

“나는 직원과 「소통의 벽」 을 느낀 적이 있다.



출처: <CEO 설문, 407명 대상>SERI CEO - 2010년 7월

McKinsey & Company | 52

In fact, a recent SERI survey has shown that a staggering 89 percent of surveyed CEOs in Korea said they felt they had problems communicating with their employees. So you can see it's a major issue with companies here.

CEO들의 소통 관련 인터뷰 결과

주요 어려움

1 조직 내 장벽 허물기

- 직급 간
- 부서 간
- 지역 간 (본사 vs. 해외법인)

2 의사 결정 프로세스

- Top-down 리더십
- 구성원의 참여

3 소통 기술의 빠른 발전

- 인트라넷/이메일
-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스마트 디바이스

McKinsey & Company | 53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tong challenge more thoroughly, we talked to CEOs of innovative companies in Korea, and listened to what they have to say about this topic, and how they deal with problems that are stemming from ineffective communication. Our conversations revealed 3 main So-tong issues for CEOs in Korea:

1st, the need to break-down communication barriers – across hierarchies, horizontally in the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ly.

2nd, the challenge to find the right balance in decision-making between a top-down approach versus a participatory approach.

And 3rd, the question of how to best use new technologies at hand – and what to avoid.



On the 1st issue, breaking down communication barriers is clearly at the heart of any CEO. Most companies aspire to create a place that is transparent and where openness exists, rather than boundaries.

Then how do you do this?

Bernard van Bunnik from Hyundai Card & Capital points out that it's not one but a whole range of tools that one has to use.

Hyundai Card, for example, has established programs like "Market Place" that gathers managers from across the organization on a monthly basis to spend the afternoon together, or "Home & Away", which makes different divisions swap their functions for one day every year to promote cross-departmental understanding.

Now let's listen to CEO Lee from IBM Korea on how to build momentum with So-tong in a company.

(영상)

이휘성 /한국 IBM 사장

“소통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만든 게 참 어렵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조직이나 또는 어떤 기관들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뭔가 상징적인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 우리가 다르게, 우리회사가 다르게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특별한 디자인되어 있는 프로그램들과 정례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의사결정 프로세스

강력한 리더십

- 빠른 속도
- 명확성

“ 전략적이고 중요한 의사 결정은 그에 대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 참여를 통한 합의 도달과 강력한 리더십 간에는 분명히 trade-off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구성원의 참여

- 동기부여
- 조직원의 성장
- 합의 도출

“ 우리는 ‘Debate’ 보다는 ‘Dialogue’의 스킬을 쌓아야 합니다... ... 카리스마적 리더십 하에서는 미래의 리더들을 육성하기 어려우며, 리더십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쿠야마 신지, P&G Korea 대표

McKinsey & Company | 55

Another So-tong challenge we identified is how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shaped. On the one hand, we have strong leadership that – as we have seen at many Korean companies – gives the advantage of speedy decision-making and clarity of direction, coupled with clear accountability.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downside to this process, because if it's a top-down approach, it may lack mechanisms to engage & motivate employees more broadly. At the same time, a participative process should not impede on the speed factor of making deci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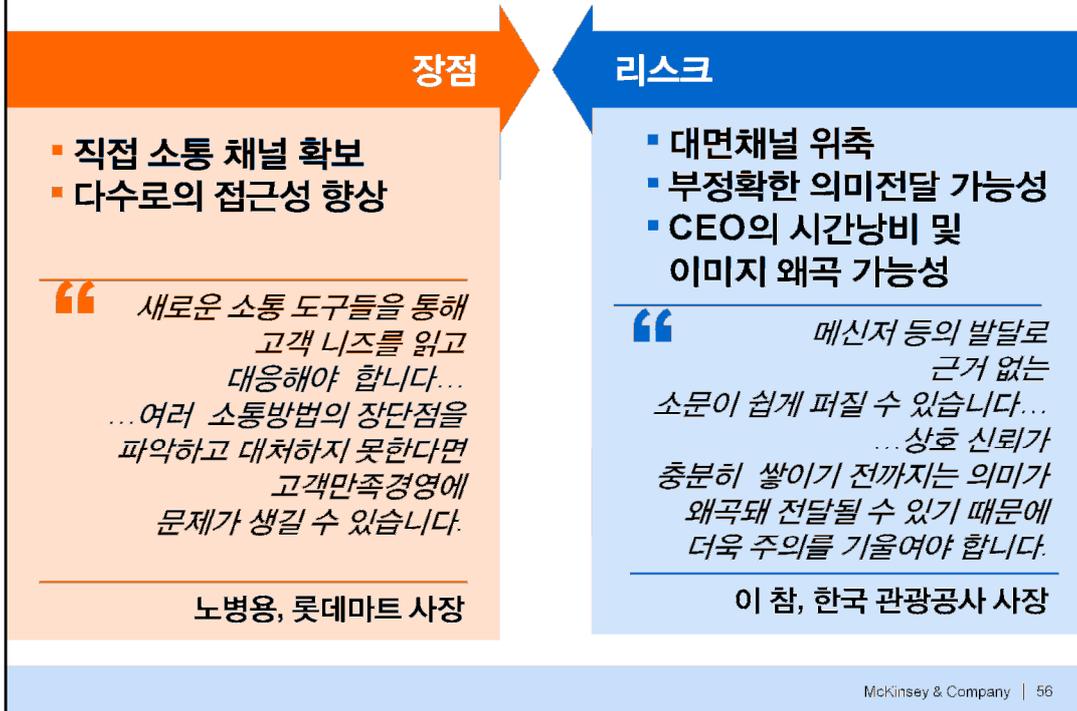
SEVP Kim from KT comments on this potential trade-off.

(영상)

김일영 /KT 부사장

“소통 중심으로 가면 결정을 하는 데 스피드도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안을, 회사 안의 이슈를 사람들에게 이야기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보 보안의 문제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스피드도 빨리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단계별로 의사 결정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소통으로 이뤄지면 아랫사람 하고 윗사람이 다 합쳐서 한 뭉치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더 단축돼요.”

3 | 소통 기술의 빠른 발전



On our 3rd So-tong topic, with the rise of new technologies, there are certainly benefits. You can broaden your reach both internally & externally, and also communicate much faster. Just recently, for example, KT decided to hand out ipad's to its employees.

But the risk is that you may end up flooded by information – or mis-information – with no clear purpose and little effectiveness.

CEO Lee from Hana SK Card puts it into perspective.

(영상)

이강태 / 하나SK카드 사장

“IT나 어떤 새로운 미디어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의지, willingness to communicate가 진짜 중요하지 그것만 되면 우리가 조그마한 쪽지를 하나 써서 주거나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하는 것처럼 그 굉장히 준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눈빛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국내 기업에의 시사점

1 조직 내 장벽
허물기

혁신적이고 상징적인 툴을
활용한 초반 모멘텀 확보

2 의사결정 프로세스

폭넓은 의견수렴과 강력한
리더십의 적절한 조합 창출

3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

소통 채널 별 사용 목적 및
대상 청취자의 명확화

McKinsey & Company | 57

To sum it all up:

At the end of the day, participatory broad communication is not natural to Koreans. That is why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symbolic programs & tools to facilitate communication. It takes time for these measures to take root, though.

Secondly,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you need to find the sweet spot between the more traditional, and often successful aspects of the Korean-type strong top-down leadership, while allowing for more listening into & participation across the organization.

And, on the 3rd question of how to cope with new technologies, it is true that Koreans pick up new technologies very quickly, but there is the risk of too much or false information spreading. That is why it's critical for companies to clearly define for what specific purpose & audience different technologies should be used.

Lastly,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 although McKinsey as a non-hierarchical organization has already a pretty good level of So-tong – I have recently again been excited to see how by implementing measures such as creating grassroots connectivity activities, we were actually able to free up a lot of additional, positive energy of our Korean colleagues, that seems to be bottled up at times.

The Koreans who I have witnessed are a very passionate people, and if you can steer So-tong to free up the tremendous energy that Koreans undoubtedly have, then I see no limits to the success of Korean companies. Thank you!

[제8차미래한국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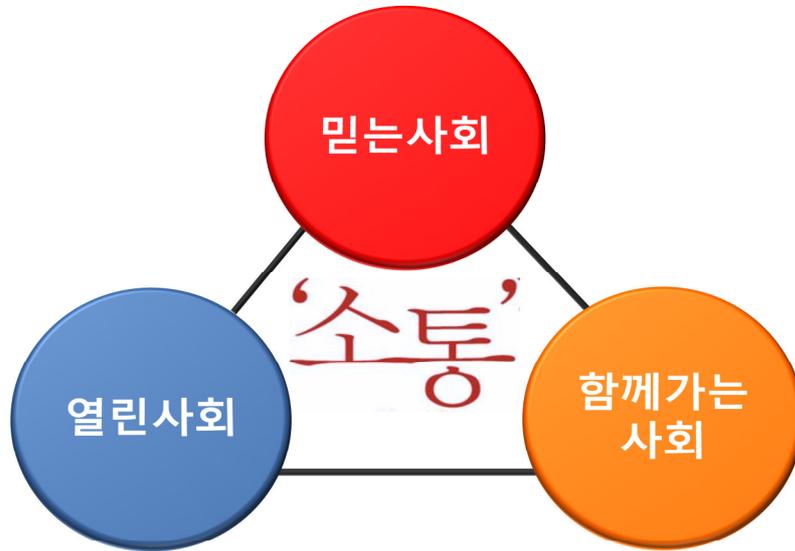
SBS 제언

Building Consensus in Korea



안녕하십니까?
SBS 미래부장 신경렬입니다.

소통 대한민국



우리는 원활한 소통을 통해 어떤 사회를 기대하게 될까요?
그것은 믿는 사회, 열린 사회, 함께 가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SBS의 제안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신뢰도부터 높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아직도 공적인 시스템보다 사적인 채널이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높습니다.

그만큼 법과 정책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음으로 여,야 및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정례회동을 제안합니다.

정치는 사회 소통의 대동맥과 같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18% 남짓입니다.

불통의 단계를 넘어 거의 먹통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 야 지도부가 더 나아가

대통령과 야당지도부가 정례적인 회동을 통해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화와 신뢰의 정치를 먼저 실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통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소통 지수 개발을 제안합니다.

소통 지수는 각 부문의 소통 추이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 소통 지수 및 소통에 대한 모니터 시스템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법과 질서 의식을 강조해왔습니다.

특별연설



좋은 정부
(Quality of Government)

부 로스타인

예테보리대학 교수

그런데 좋은 정부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부 로스타인 교수는 사회적 신뢰는 좋은 정부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정부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로스타인 교수의 특별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Professor 로스타인?

Many thanks for inviting me to this occasion. I am deeply honored to be here and get a chance to present the research from The Quality of Government Institute at University of Gothenburg for which I am responsible. This research institute was started in 2005 and in addition to a large number of research reports now also has the largest data set in the world in this research area – a dataset that is freely available.

I am going to talk about three things. What is Quality of Government (or QoG as is the acronym). Why is it important? And what is the problem of how to get it.

좋은 정부는 공평한 정부

- ▶ 원칙있는 법과 정책의 집행 (예외 불인정)
- ▶ 공평한 행정의 집행
- ▶ 부패, 차별, 파벌, 족벌주의, 편파주의 배제

Our definition of QoG is the following: When implementing laws and policies, government officials shall not take anything about the citizen/case into consideration that is not *beforehand* stipulated in the policy or the law. The central norm is IMPARTIALITY.

This means that QoG is about how political power is exercised by state authorities, or in other words, how the civil service and the public administration operates. This also means that it is not the same as democracy – you can have high QoG without being a democracy, for example Singapore, and you can have be a democracy without having high QoG (for example Indonesia, Romania, Greece).

QoG as impartiality rules out things like corruption, discrimination, clientelism, nepotism, cronyism..

좋은 정부, 왜 중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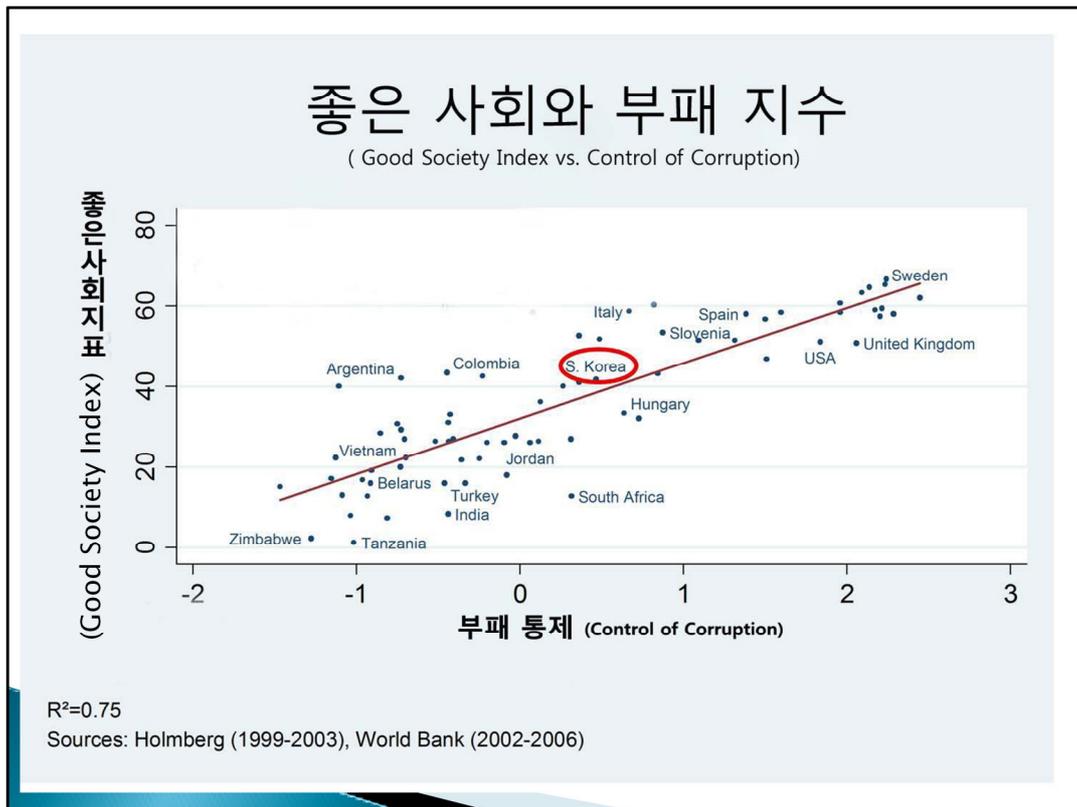
- ▶ 경제 성장과 개인의 행복
 - ▶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자본의 증대
 - ▶ 사회적 갈등과 국가간 전쟁 가능성 감소
- ➔ 좋은 정부는 민주주의보다 효과적

-Why is QoG important? Because according to our research it is positively highly correlated to Economic prosperity, Subjective well-being ("happiness"), Population health, Social trust, Low propensity for civil strife (civil war) and also low propensity for interstate war. On all these matters, high QoG has a stronger effect than has Democracy.

좋은 정부와 좋은 사회

- ▶ 유아 사망률이 낮은 사회
- ▶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회
- ▶ 구성원들이 “행복”한 사회

At the QoG Institute, we have created what we call “the good society index”. We argue that in the good society, small children don’t die, people live long and health lives and in between, they are “happy”.



Thus we have two objective measures and one subjective (subjective well-being).

As you can see, there is a very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f a country has a high level of QoG and if it scores high on our "good society" index.

How do you get QoG? This is "the million dollar" question of course.

Last year's Nobel Laureate in Economics, Elinor Ostrom, got the prize for how this can be done in small local communities.

In whole societies, this is much more difficult.

Contrary to most economists, we don't think this is an "incentive problem" because if so, it would be easy to solve.

The problem with using incentives (rewards and punishments) is that in a low QoG society, there is no "principal" that can be expected to administer the incentives system in a fair and honest way.

Instead, our theory is that QoG is a collective action problem.

좋은 정부, 사회적 신뢰가 관건

- ▶ 모두 정직하고 부패를 멀리하면 윈-윈
- ▶ 남들도 정직할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
- ➔ “신뢰” 부족은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사회적 함정' (social trap)

Everyone wins if (almost) everyone chooses to be honest and abstain from corruption etc.

But – if people cannot **trust** that most others will be honest, they will not be honest.

Thus, dishonest behavior may be rational when people do not **trust** that others will also refrain from corrupt practices.

Conclusion: Efficient cooperation for QoG can only come about if people **trust** that most other people will also behave honestly.

Lacking such **trust** leads to a “social trap” situation This is a situation where (almost) everyone lo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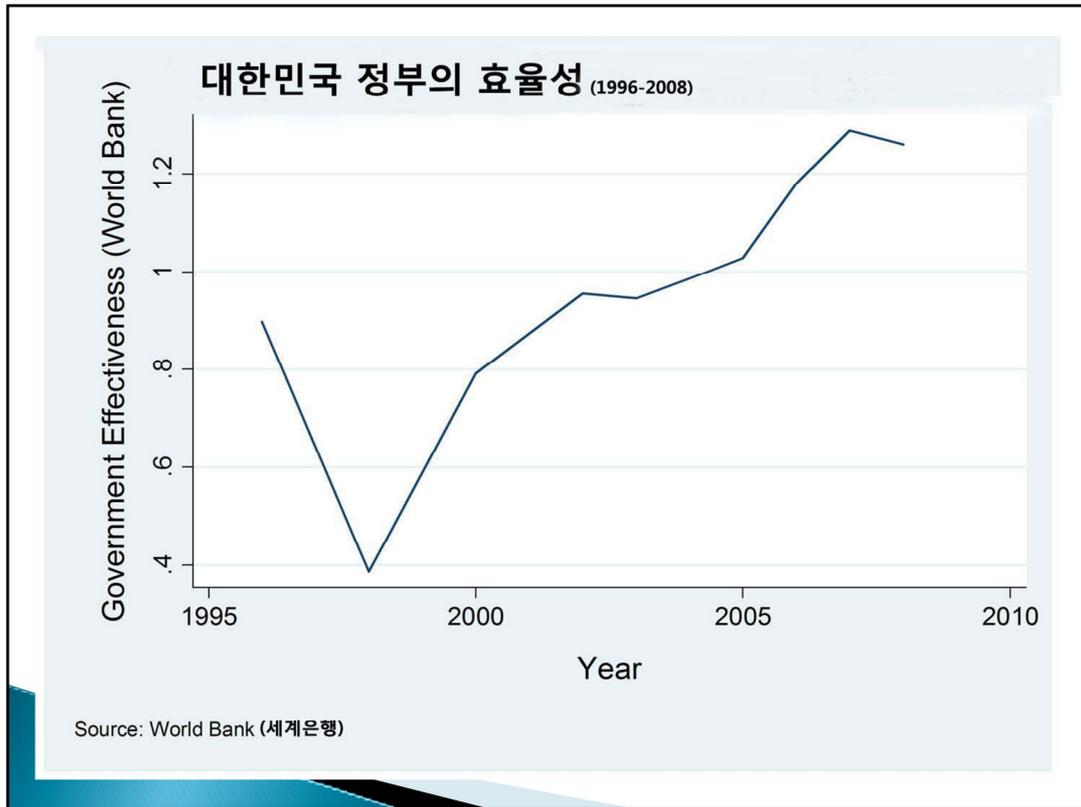
The central thing that is needed is thus TRUST.

The logic of this theory is as follows: High QoG and Social Trust can be destroyed by Discrimination from government, Corruption in government, Unfair treatment by government, High levels of inequality “The Fish Roots From Head Down”

나쁜 정부에서 좋은 정부로

- ▶ 점진적 변화로는 불가능
- ▶ 빅뱅 같은 혁명적 변화가 필요
- ▶ 주관적 규범 → 보편적 규범
- ▶ 정파적 정부 → 공평한 정부
- ➔ 사회적 신뢰는 좋은 정부에서 나온다.

The few countries in the world that have moved from low to high QoG have not done so in an incremental way. Instead, these changes can be described as huge "Big Bang" almost revolutionary changes
From personal to impersonal rule
From particularistic to universalistic political culture
From partisan to impartial civil service.



Let me end by showing two slides about where Korea stands. The first one is the World Bank's measure of "Government Effectiveness", where you can see that the country has improved.



The other one is Transparency International measure of perceptions of corruption where you can also see an improvement. However, I should add tha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Korea is in the middle, not very bad but also not very good. There is thus room for improvement.

좋은 정부는

- ▶ 경제발전, 행복, 좋은 사회를 만듦.
 - ▶ 한국 정부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중간
 - ▶ 대부분 사회문제는 나쁜 정부가 원인
- 좋은 정부는 특별하고 힘든 것.

Let me then conclude:

QoG is important for creating prosperity, human well-being and "the good society"

South Korea has improved but still only scores in the middle, not high not low.

Most social ills in today's world are caused by low QoG

Historically and in the contemporary world, QoG is the exception, not the rule.



열린 사회는 소통의 중요한 조건이고 그 전제는 참여의 장을 넓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SBS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시범실시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투표는 정치적 소통의 최종 단계입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만이 정치권의 불통 현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심원제든 개방형 선출제든 공천 참여의 개방성을 더 확대해서 정치권과 국민의 소통력을 높여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전문적인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는 일반 시민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갈등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국의 공공갈등 조정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프랑스는 지난 1980년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겪은 이후
CNDP 즉 '공공토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CNDP는 시민 참여형 갈등조정 위원회로 사안별로 12명의 위원을 선정해
공공갈등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프랑수아 르블롱/CNDP 그랑파리 교통망 공공토론 특별위원회장
"CNDP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국가나 지역공동체, 시민단체로부터 독립돼 있어 토론의
정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CNDP의 중재안은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어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 각 부처에 갈등관리 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분쟁해결법 등 관련법도 갖췄습니다.

정책 결정자와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타운홀' 미팅이 활성화 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인터뷰> 제프 아이라 / 미국 레드우드 시장
"절차가 더 투명할수록 대중들이 더 우리를 믿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알게 되고,
이러한 의사 결정에 대해 더 편하게 생각하고, 대중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을 느끼게 된다"

EU는 유럽연합 가입, 유로화 사용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공론조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론조사는 단순한 여론조사와 달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게 한 뒤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인터뷰> 피쉬킨/스탠포드 대학 교수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에는 큰 분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 정말 숙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특정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현명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웨덴은 국가조사 위원회를, 덴마크는 기술 위원회를 두고
환경과 주거, 의료등 공공 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런 기구들은 정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심의 절차의 주체가 되면서
공공 정책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함께가는사회

교육과 빈곤 등
경제,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배려와 포용적 소통문화 확산

토론문화와 비폭력대화법 교육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빈곤 등 경제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과 장애우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인정받을 수 있는 포용적 소통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소통의 통로가 온라인과 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변화는 건전한 토론 문화 없이는 사회적 소음만
양산해 낼 것 입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토론식 학습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잠시 후 비폭력 대화
센터 한국 대표인 캐서린 한 선생님 소개할 비폭력 대화법을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연설



“마음으로 소통하라”

캐서린 한

한국 비폭력대화센터 대표

그러면 비폭력 대화센터 한국대표인 캐서린 한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폭력적 언어가 얼마나 소통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비폭력 대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비폭력대화센터의 캐서린 한입니다.
여러분 소통 잘 하고 싶으시지요?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즐겁게 소통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면 저항하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권위적이고 경직된 사회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거나 자기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사회는 성숙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소통을 방해하는 폭력적 사고방식들이 알게 모르게 몸에 배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기저귀 찬 아기가 기어가다가...



아기가 기어가다가 책상 다리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합니다.
대부분 우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고는 책상다리에 어떻게 하십니까? 때찌하시죠?
책상 다리를 한 대 때리고 아이에게도 와서 때리라고 합니다.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아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아플 때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상대를 때리는 것이구나'를 배웁니다.
이 때 배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하지요? 여든이요? 요즘은 고령화 시대라 100살까지 갑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소통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비폭력 대화입니다.
우선 아이에게 "아팠어? 놀랐구나..." 이렇게 위로해주고
"책상도 아팠겠네... 다음부터는 모두 안 아프게 여기에 수건을 감아놓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이제 아이는 배웁니다.
'아...내가 아플 때는 다른 사람도 아플 수 있구나. 그리고 둘 다 아프지 않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구나'를 배웁니다.
서로 배려하는 소통이 가능해지는 순간입니다.

육상동물 中 가장 큰 심장을 가진 기린



출처 : 에버랜드

여러분, 기린 아시지요?
기린은 긴 목 위의 머리로까지 피를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육상동물 가운데
가장 큰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통의 방법에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기린형 소통과 자칼형 소통이 있습니다.

자칼형 소통 對 기린형 소통

자칼형 소통

- ▶ 비난
- ▶ 판단, 평가
- ▶ 강요
- ▶ 비교, 경쟁



출처 <http://www.somangnote.com/DefaultF.aspx?photoID=58196&searchValue=>

자칼형 소통은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강요하는 소통인데요. 우리 대부분이 이런 말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예를 들면..."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것 밖에 못해?" 같이 우리를 외롭고 힘들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자칼형 소통 對 기린형 소통



출처 : 에버랜드

기린형 소통

- ▶ 있는 그대로 관찰
- ▶ 느낌, 감정 인식
- ▶ 욕구를 알아주고
- ▶ 부탁, 요청

서로의 느낌이나 감정을 알아봐주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 이해나 인정을 받고 싶고 존중 받고 사랑 받고 삶의 보람이나 의미 같은 욕구들을 찾아 연결하고 부탁하는 소통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와 자칼 인형끼고)

5학년 아이가 “엄마 나 영어 98점 받았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기분 좋지요? 그런데, 이틀 후에 실제 점수가 78점인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 아이를 잡아놓고 보통 엄마나 아빠가 하는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너 왜 거짓말 했어? 뭐가 되려고 그래?” 심지어는 “너 그렇게 부모 속이려면 집에서 나가”라는 말까지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 아이였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고 겁나고 미안하고 짜증나고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나 엄마나 둘 다 힘들고 상처받고, 소통이 단절됩니다.

(기린 인형으로 바꾸면서)

자 하지만 이런 대화가 가능합니다. 우선 엄마가 자신의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는 첫마디는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입니다.

엄마: “성적이 네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어?”

아이: “네” 엄마: “그런데 엄마, 아빠는 네가 무슨 말을 하면 믿을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이: “지난번 점수 안 나왔을 때 나 때렸잖아요!” (“맞을만 했으니까 맞았지”가 아니라 이 말 뒤에 있는 아이의 마음을 들어줍니다.)

엄마: “그게 너무 싫어서 피하고 싶었어?”

아이: “네” 엄마: “엄마는 네가 밖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엄마나 아빠한테 편하게 와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쯤 되면 아이는 ‘이 말을 믿어도 되나’ 의심스러워서 침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까지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엄마:“엄마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아이:“엄마 옛날식으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대화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생기면 문제 해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 학원에 가서 배워”가 아니라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아이에게 문제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마가 “너 왜 거짓말 했어?”하면서 자칼식으로 혼을 낼 때나
기린식으로 대화를 할 때나 그 밑에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라게 됩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나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린식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자칼식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기린식 소통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배워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나 전문가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기린식 소통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소통에 관심을 보여주실 때 저는 우리나라 미래는 달라지리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한 특별 연사들은 소통을 해결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 힘을 발견하고 갈등의 씨앗을 대체할 희망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오늘 발표회를 준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통을 권력으로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 사회가 소통을 외치는 것은
보수대 진보의 이념 문제도, 아젠다와 이슈의 내용 문제도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권력 즉
힘의 충돌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돌을 피하고 사회적 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식인과 언론이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상황과 현상을 분명하게 해석해주는
소통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SBS가 바로 그 소통의 중심에 서서 사회의 혈액순환인 소통을 촉진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라)

강 평



이재오

특임 장관

(앵커) 이번에는 오늘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재오 특임장관께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이재오 특임장관>

오늘 이렇게 아주 시기 적절하게 좋은 자리 마련해 준 SBS 윤세영 회장과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불통의 주범이 정치인 거 같습니다.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지를 거치고 식민지가 끝나면서 분단이 되고 분단이 끝나면서 군사 독재가 장기화 되면서 그 가운데서 권력이 모든 사회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나라의 경제 수준은 매우 높아졌습지만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물려받은 유산, 즉 산업화 진행되면서 부패가 문화처럼 자리 잡았고 민주화 진행되면서 권력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사회의 소통이 안 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부패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반부패 청렴지수가 CPI국제투명성 기구 조사에서 작년과 금년에 10점 만점에 5.4정도 입니다. 세계 18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39등, 40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가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 180개국 중에 150등 이하 180등까지 된 나라는 대개 반부패 청렴지수가 2점에서 1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청렴 나라일수록 경제 수준이 대개 3만불 이상 1인당 GDP가 올라갑니다. 부패한 나라일수록 경제 수준이 대개 5천불 미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금년도 유엔 CPI가 발표한 세계반부패청렴지수 178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39등을 했는데 39등이 두 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 40개 나라 중에 우리와 같은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소득 3만불 되는 나라가 24개 나라가 되는데 24개 나라 중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체제를 갖고 있던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년간 5년 마다 선거를 치르면서 불신과 부패를 키워오고 있습니다. 부패가 가장 심한 곳이 정치와 공직사회입니다. 정치와 공직사회의 부패는 선거를 통해서 양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5년마다 승복의 문화보다는 반항의 문화, 저항의 문화, 투쟁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쟁 정치를 섬김의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 부패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부패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공정사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재야서 야당 거쳐서 여당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정치 한가운데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반성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당이 돼서 정권 한가운데 있어 보니까 투쟁의 역사로서는 더 이상 나라를 선진국으로 갈 수도 없고 더 나라를 소득 3만불 시대도 갈 수 없고 발전시킬 수 없다. 투쟁의 역사, 투쟁의 철학을 섬김의 철학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섬김의 정치로 바꾸려면 아까 한상진 교수가 얘기했던 남의 말을 반대자 의견을 경청하고 반대자 의견을 존중하고 반대자 의견 차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문화, 반대자 의견과 자기와 다르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 그러한 섬기는 문화로 한국의 정치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소통은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 소통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공정사회가 이뤄지지 않고 공정사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 남은 이 부패 불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이것을 치유하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제가 정권에 들어와서 체험적으로 느낀 반성입니다.

오늘 이 SBS에서 이 중요한 기획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불신과 부패의 근원적 처방을 해야 할 때다.. 이 근원적 처방은 정치적 대결단, 정치인들의 대 반성. 소득 50불 대의 정치 체제나 개인소득 50불 대의 정치체제나 개인소득 2만불 정치체제가 똑같습니다. 국가자산 10조도 안 되는 나라의 정치체제나 국가자산이 300조가 되는 나라의 정치 체제가 똑같습니다. 국민 소득 2만 불의 대부분의 소득을 외국에서 가져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 50불 미만의 대부분 내수에 의해서 소득을 채우던 시대와 우리 나라의 정치 체제는 똑같습니다.

이제 저는 감히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정치 체제가 한국의 정치와 정당은 지력이 다했다. 대기에 객토를 하고 장물을 교체하고 정치적인 대결단과 정치 개혁과 정치적 변화 없이는 한국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부패가 사라지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 기로에 한국이 서있다. 이 시점에 SBS가 매우 좋은 주제로 설정을 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하할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투쟁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 하는 것을, 섬김을 통해서 뭘 얻는다는 것으로 바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후기의 국정 철학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8차 미래한국리포트 '2010대한민국 왜 소통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SBS는 앞으로도 미래한국을 여는 언론으로서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